

# “간절히 원하고 심없이 정진하라”

## 삼광사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 신도 생활상도 변화 물결

부산 삼광사(주지 화산)의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가 중간 반환점을 돌아, 100일 원만회향을 향해 힘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도는 신도 개인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정신문화를 바꾸는 등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적이 드문 늦은 밤, 굶은 날씨도 개의치 않는 1000여 명의 신도들이 삼광사 지관전을 가득 채웠다. 6월 1일부터 시작된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를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3시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다. 기도가 끝나면 피곤할 법도 한데 법당에서 기다렸다가 새벽예불까지 울리고서야 집으로 향한다.

그냥 앉아만 있기도 힘에 부칠 일흔을 넘긴 노보살 변금분(73)씨는 “기도를 시작한 후부터 전혀 피곤함이, 눈을 감으나 뜨나 매한가지로 편안해짐을 느낀다”며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원력으로 이어져낸 것 같아 그저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다른 발원으로 기도에 참여한 신도 김귀분(64)씨는 “몸이 아픈 남편을 위해 기도하려고 참가하게 됐



부산 삼광사에서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에 동참한 신도들이 새벽 3시까지 엄불 삼매에 빠져있다.

는데, 정말 부처님의 가피력 덕분에 기적처럼 회복세에 접어들어 퇴원을 앞두고 있다”며 “나처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원을 세우고 오로지 정진하고 또 정진하면 분명 이뤄져 살아가는데 걸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광사 수천 명의 신도들이 부르는 관음정진 기도는 이들의 출렁이던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그 위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가족의 저녁상을 차리고 서둘러 절로 향해 새벽까지 기도를 한 후 첫

차를 타고 귀가하는가 하면, 장사를 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신도들은 법당 한편에서 새우잡을 자고 골장 일터로 향한다. 그리고 이들은 집, 가게, 회사, 학교 등지로 돌아가 맑고 청정한 에너지를 나눴다. 삼광사의 한 법당에서 시작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초음으로, 또 부산 전역으로 번져나가 지역사회의 정신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삼광사 신도들이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에 동참하는 진짜 이유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 “정진으로 누구나 주인돼야”

## 조동종, 행복 스님 종회의장 임명

대한불교 조동종은 7월 13일 총무원 서울 도선사에서 종회의장 및 종회의원 임명식을 종정 지명 스님, 총무원장 덕우 스님



조동종은 7월 13일 도선사에서 종회의장 및 종회의원 임명식을 봉행했다.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이날 종회의장에는 해륜행복 스님이 재추대됐다. 종회의장 행봉 스님은 “위로는 종정예하를 모시고 총무원장님을 위시한 종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4년의 임기를 마쳤지만 부족한 행보를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입법수장의 자리에 재추대해 주신 종회의원스님들께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며 “거짓과 환심이 아닌 성실과 신뢰, 끊임없는 정진과 수행으로 누구나 주인이 돼 리더십을 발휘하고 동체대비(同體大悲) 사상과 이타행을 실천했을 때 밝은 종회, 더 나아가 화합종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상의 상존하면 부처님의 법칙에 따라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리라 확신하며 끝으로 덕 높으신 종회의원 스님들의 큰 가르침을 따라 열과 성을 다해 불사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 제주불교여성합창단 불교합창 1위

## ‘월드콰이텡피언십 코리아 2009’ 성료

부처님의 법음을 노래하는 지구촌 불자들이 경남남도에도 모였다. ‘노래하는 인류, 하나 되는 세계’라는 슬로건 아래 ‘월드콰이텡피언십 코리아 2009’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7월 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창원, 마산, 김해, 진주 등 경상남도 전역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아마추어 합창단과 세계 대회에서 입상경력을 가진 우수 합

창단이 총집결해 회고를 가리는 자리로 29개국 총 193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국제오른콰이텡피언십 불교합창 부문에는 한국, 인도네시아 등 총 25개 팀이 경연해, 1위 제주불교여성합창단, 2위 밀양불교합창단, 3위 부산불교교육대학합창단 등 상위 14등까지 국내 불교합창단이 차지해 한국 불교계 합창단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박지원 기자

# “문화와 불교공부 중심도량 만들터”

## 김해 여여정사 김해포교원 개원

김해 삼계동에 부처님의 바른 법을 펴는 청정도량 여여정사 김해포교원(주지 도명)이 산문을 열었다. 이번 개원포교당은 삼랑진 여여정사의 첫 번째 포교원으로 여여정사의 주지 정여 스님(법어사 주지)의 상좌인 도명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았다.

7월 17일 오전 10시 정안식에 이어 오전 11시 개원법회는 육법공양, 축사, 경과보고, 주지 도명 스님 인사말, 법어사 주지 정여 스님의 특별법문 등의 순으로 1시간 가량 여법하게 진행됐다.

주지 도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자들의 수행과 교육, 다도와 찬불가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불교공부 중심도량으로 신심

과 문화를 함께 고취하는 도심포교원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여 스님은 “가락불교의 역사상자인 김해에서 불교문화의 역사를 다시 열어야한다”며 “많은 김해 시민들이 이곳 맑은 도량에서 마음을 닦고 정진해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원법회와 동시에 10개월 과정의 제1기 여여불교대학을 개강했다. 아침·오후·야간반으로 나눠 불자의 신앙생활, 불교의식, 기초교리, 불교예절, 기도방법, 천수경, 고찰탐방 및 현장학습 등을 교육한다. 정여 스님(법어사 주지), 상현 스님(법어사 주지), 백니짜 스님(미안사 주지) 등 8명이 강단에 오른다. (055)311-2911 박지원 기자

# 천년 세월 품고 피어난 한 송이 꽃이여

## 미타선원 미타갤러리 금강 스님 탁본전

땅끝마을 미항사 주지 금강 스님의 탁본 전시회가 부산 불자들을 찾아온다.

미타선원 미타갤러리(관장 회상)는 7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 달간 ‘금강 스님의 꽃잎이 피는 자리’를 기획전시한다.

이번 전시회는 ‘꽃잎으로 핀 미학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금강 스님이 고찰의 꽃문양만을 모아 천년의 세월을 머금은 돌에 핀 꽃의 향기를 탁본으로 담아낸 50여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평소 눈여겨보지 않으면 보기 힘든 연잎과 연꽃 등 꽃문양은, 한국 토종꽃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아낸 잔잔한 감

동을 선사한다.

금강 스님은 미항사와 구산선문 등 전국 고찰에서 다양한 문양들을 탁본으로 담아내며, 1996년 ‘미항사와 구산선문 탁본전’을 시작으로 1997년 ‘천년의 미소’, 2001년과 2009년 ‘꽃잎이 피는 자리 1, 2’, 2003년 ‘범종문양 탁본전-천년의 소리’ 등 꾸준히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미타갤러리 관장 회상 스님은 “이번 전시회는 사진으로는 담아내기 불가능한 문자나 문양의 점획과 선 등 미묘한 부분까지도 표현해내는 탁본의 진정한 의미

를 알아보고, 돌꽃 속에 깃든 한국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051)253-8687 박지원 기자



# “부처님 광명으로 경제회복 기원”

## 부산 대각사, 국제보살계·생전49재 대법회 봉행

(사)화쟁교단의 중심사찰, 부산 대각사(조실 경우)는 7월 8일 ‘국제보살계 및 생전49재 대법회’를 봉행했다.

국제보살계 수계법회는 전제아사리 경우 스님, 갈마사리 중국 원광선사 석명예 스님, 교수아사리 가산 스님 등이 100여 명의 불자에게 보살계를 수계했다.

이번 법회는 어려운 경제 위기 속

에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가정의 소구소원을 이루고, 나라의 경제회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우 스님은 “한국불교는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보살계를 통해 모든 국가와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해 평화통일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현대인들의 정신적 치유, 구병시식, 중생제도 안식처

# ‘빙의 치료 대가’ 혜봉 스님

## 구병시식, 빙의퇴치 영가천도 지장도량

영가천도 구병시식 부처골 지장선원

영혼취 워터

영가천도 구병시식 부처골 지장선원

☎716-873 경북 경주군 고로면 화북리 458-1 (054)383-8553 011-9585-4908

www.jijang999.com / ☎02 가계 "부처골종교소리"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인 정신적인 ‘빙의’는 오랜 시간을 지내오면서 스트레스로 손꼽히고 있다. 우리 인간이 생활해 오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한 영적현상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심령(心靈)치료이며 그 중의 하나가 빙의의 원인을 풀어 나가는 핵심이라고 본다. 그런데 ‘빙의 치료 대가’ 혜봉 큰스님을 만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 또한 중생들에게 기쁨의 소신 아닌가!! 현대의학에서 풀지 못한 미스터리한 병을 심령치료로서 지친 영혼들의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며 영적치유로 새 삶을 누릴 수 있는 ‘영험이 살아 있는 소원성취 기도도량 천년고찰 부처골 지장선원’

- 주소 : 경북 경주군 고로면 화북 2리 458-1번지
- 전화 : (054)383-8553 / 011-9585-4908
- 홈페이지 www.jijangsw.com

다음카페 '부처골 종교소리' http://cafe.daum.net/jijangsw/www.jijang999.com

※ 한국심령과학연구회 회원모집 (기공사, 점사, 빙의치료 관심 있으신 분)

**부처골 지장선원 종정 혜봉 대종사**

책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세요!!!

보시금 1만원 입금하시면 ‘빙의가 물려온다’ ‘아가야 미안해’ 책 3권을 보내드립니다.

[농협 703088-51-013554 예금주:지장선원]